

일제말기 만주 지역 시조 연구*

우 은 진**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3. 『만선일보』 검열의 영향과 문학인으로서의 육망 |
| 2. 『만선일보』의 오죽협화 이데올로기와 시조 장르 | 1) 신인 시조시인의 활동-이포영의 경우 |
| 1) 조선 문학에 대한 매체의 허용과 검열 | 2) 문학도의 시조 창작-심연수의 경우 |
| 2) 『학예란』의 시조 담론-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의 양상 | 4. 나오며 |

국문초록

만주국은 1932년 3월 일본 제국의 점령에 의해 수립된 괴뢰 국가이다. 『만선일보』는 만주국의 기관지이자 일제말기 만주 지역 조선인 문학의 유일한 발표지면이었다. 『만선일보』는 한글문학을 허용했으나, 그 안에는 식민당국의 내용 검열이 존재했다. 그 검열은 작품의 질에 우선하는 요건이 되어 작품 발표 또는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만주에서 활

* 본 논문은 2015년 7월 17일 한국문학회 춘계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동을 하고자 하는 문인이나 문인지망생 모두 그 검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본 연구는 일제 말기 만주 지역에서 창작된 시조들을 그러한 매체 담론에 대응하여 나타난 작품 담론이라고 보고 그 관계를 고찰하고 있는 논문이다.

일제말기 만주에서 창작된 시조 가운데 현재 확인 가능한 작품은 1939년 12월부터 1941년 12월까지 2년 동안 『만선일보』에 게재된 28편의 시조와 심연수의 미발표 작품들이다. 『만선일보』 발표 작품 중에서는 특히 이포영의 시조를 통해 매체의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며 문학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인 시인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심연수의 경우에는 문학장 진입을 희망하는 문학도로서 매체의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그 시조들을 텍스트로 삼아 『만선일보』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와 문학적 욕망과 관련하여 일제말기 만주 지역 시조의 작품 담론을 분석하고 있다. 오죽협화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매체인 『만선일보』와 그 안에서 시조를 발표했던 또는 발표하고자 했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의 관계를, 작품 담론 차원에서 허용과 검열에 대한 수용과 대응의 관계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시조, 일제말기, 만주 지역, 『만선일보』, 이포영, 심연수, 담론

1. 들어가며

만주국은 일제의 침략에 의해 1932년 3월에 수립된 괴뢰국가이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溥儀)를 최고통치자로 내세우며 형식적으로는 독립국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일본제국의 일부로서 일본 관동군에

1)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연맹을 의식한 결과로서, 중국 침략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설명된다. 프래신깃트 두아라는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한 후

의해 점령된 지역이었다.²⁾ 만주국의 정치 구조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관동군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그곳에 이주시켜 확장된 식민지배공간을 형성하고자 했다. 사실 만주국 수립 이전에도 조선인이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것은 식민지 사회의 곤궁과 착취로부터 탈피라는 차원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만주국 수립 이후, 조선인의 이주는 일제의 주도 하에 통제와 강제성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 그와 함께 이주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³⁾

만주국은 수립 초기부터 건국 이데올로기로 오족협화와 왕도낙토를

에도 만주국을 공식적으로는 독립국으로 남겨두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첫째, 주권국가의 틀은 전쟁에 필요한 자원 동원이라는 제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권리와 자치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선택된 것이었다. 둘째, 일본-만주 블록이라는 아이디어는 당시 일본제국이 만들어낸 동양/서양 대결의 아시아주의 담론, 즉 서양과 대결하기 위한 아시아 민족들의 단결과 공식적 평등이라는 환상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었다. 프래신지트 두아라,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132-134쪽.

- 2) 당시 조선 사회의 언론도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1933년 8월 17일자 『신한민보』에 게재된 『만주국의 장래』라는 사설을 보면, 만주국을 승인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난징 정부뿐이며, 그 승인이란 사실 독립국으로서 만주국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만주 지역을 중국의 주권 영역에서 빼내어 일본의 세력 범위 아래 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주국의 장래』(사설), 『신한민보』, 1933. 8. 17, 장인성·김태진·이경미 편,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제2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227쪽에 옮겨져 있는 자료를 재인용.
- 3) 만주국 수립 이전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먼저 초기 이주는 전근대 조선 정부의 통치하에서 겪는 생활의 곤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제국의 침략 이후 그 억압과 착취를 탈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만주국 수립 이후 조선인의 만주 이주는 관동군과 일본 척무성, 조선총독부, 만주국, 즉 일본제국 당국에 의해 계획·관리되었다. 더불어 이주자 수도 그 이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때 일본제국은 처음에는 조선인 이주를 통제했다가 필요에 의해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주용, 『만주지역 한인 집단이주와 강제성』, 유지원·김영신·정성미·김주용·이홍석, 『이민과 개발-한중일 삼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2011, 129쪽, 133-134쪽; 정혜경, 『조선 청년이여 황국 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2011, 206쪽.

내세웠는데⁴⁾, 이는 만주국 이주를 장려하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오족협화란 일본인, 조선인, 만주족, 한족, 몽골족 다섯 민족이 평등한 위치에서 협동하고 화합하자는 이념이었고, 왕도낙토란 그 결과로 만들어진 이상적인 동양국가로서의 만주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때 오족협화 이데올로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었다. 첫째, 일본제국의 식민지 개척과 확장을 위해 만주 지역에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타민족이 이주하고 새로운 지배체제가 들어서게 된 현실을, 동양 민족의 화합이라는 이상의 실현인 것처럼 위장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오족 중 일본인과 조선인은 대부분 일본제국의 국민으로서 만주국에 이주하게 된 이들이었을 뿐더러,⁵⁾ 제국의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이라는 식민지배의 위계를 내면화하여, 원래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민족들에 대해 차별적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다. 오족협화는 그렇게 실제로는 협화를 할 수 없는 상황과 관계를 덮기 위한 구호였으며, 거기에는 피지배 민족의 협력 또는 순응을 유도하고 침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이 깔려 있었다. 둘째, 조선인의 이주를 장려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일제는 만주를 중국과 분리된 정치 권역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제국의 국민이자, 농지를 개척하여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서, 조선인이 만주국에 존재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래서 만주국을 자원이 풍부한 데다 오족협화가 이루어져 있어서 살기 좋은 낙토로 선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만주국에 이주한 조선인들의 현실은 그러한 일제의 선전과 다르게 힘겨웠다.

4) 만주국의 건국 이데올로기는 순천안민(順天安民), 왕도낙토(王都樂土), 국제신의(國際信義)의 존중, 문호개방, 인재 등용, 오족협화(五族協和)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강조되는 기치가 바로 '왕도낙토'와 '오족협화'였다.

5) 만주국 수립 이전에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이주하려던 조선인들이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감시·통제받았던 점과, 만주국 수립 이후에 조선인들이 일제의 정책과 선전에 의해 만주 지역으로 이주했던 점을 비교하여 고려해야 한다.

오족협화와 낙토만주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믿고 이주하였던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되었든, 일제의 선전과 통제라는 정책 아래 만주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재만조선인 문학도 형성되었다. 그 중 시문학 활동의 양상은 동인지인 『북향』(1935~1936)⁶⁾, 시선집인 『재만조선시인집』과 『만주시인집』(1942)에 수록된 작품, 그리고 『만선일보』 게재 작품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시조의 경우, 만주 지역에서 창작된 작품 가운데 현재 확인 가능한 작품은 1939년부터 1941년까지 『만선일보』에 게재된 시조 중 남아 있는 28편과 1940년대에 창작된 심연수의 미발표 작품들이 전부이다.⁷⁾ 그 시조들은 대부분 당시 만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신인 또는 무명 시인들의 창작물로 파악된다.⁸⁾

이 논문에서는 『만선일보』에 발표된 시조와 심연수의 시조, 이 둘을 텍스트로 삼아 일제말기 만주 지역에서 창작·발표된 시조의 작품 담론을 분석해보고자 한다.⁹⁾ 이 시기 만주 지역에서는 시조 창작과 발표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시조론 형태의 시조 담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시

6) 1935년에 1호를 발간했으나, 문학동인회 ‘북향’이 결성된 때는 1932년이였다.

7) 윤해영의 『척토기』가 『반도사화와 낙토만주』(1943)에 수록되어 있으나, 이 시조는 1941년 1월 15일자 『만선일보』에 먼저 발표된 뒤 동일한 작품이 재수록된 것이다.

8) 당대 조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시조시인들의 만주 체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만주에서 시조를 창작·발표하거나 만주를 시조에 재현한 예는 매우 드물다. 장응두의 경우 1936년 7월 『조선문단』 공모에 당선된 작품인 『鴨綠江을 건너면서』에서 만주로 이주해가는 조선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나, 이때는 그가 통영에 거주하고 있을 때였다. 이후 장응두는 만주에 거류하며 『만선일보』에 이향의 슬픔을 담은 2편의 작품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모두 자유시였다. 한편, 최남선은 『만선일보』 고문과 만주국 건국대학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고, 합동수필집 『만주조선문예선』(1941)과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간행물 『반도사화와 낙토만주』(1943)에 글을 게재하기도 했으나, 그 시기에 시조 창작은 하지 않았다. 또한 이병기와 이은상도 『반도사화와 낙토만주』에 글을 실었으나, 시조 작품을 발표한 바는 없다.

9) 이스툼에 의하면 시는 시적인 담론 양식이다. 이에 따라 작품론은 중요한 시조 담론으로 다뤄질 수 있다. 앤터니 이스툼, 박인기 역, 『시와 담론』, 지식산업사, 1994, 41-42쪽.

조를 근대문학 장르로 인정하여 창작을 하고 있는 점은 조선 국내의 시조를 수용한 결과라 여겨진다. 1920년대 중반의 시조부흥론과 1930년대의 시조혁신론의 영향으로 일제말기에 시조는 조선 근대시문학의 한 장르로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었다.¹⁰⁾ 이런 맥락에서 『만선일보』에 시조를 발표하는 또는 발표하고자 하는 문학 행위에는, 장르 선택의 차원에서 이미 당시 재만 조선인이 지니고 있었던 조선인으로서의 존재 인식과 조선 국내 문학의 영향이 함께 내포되어 있었다고 본다. 이는 이 연구에서 『만선일보』에 발표된 시조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만선일보』에 실제로 창작·발표된 작품의 양상을 보면, 만주 지역의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제약도 반영되어 있었다. 만주 지역에서 조선인이 문학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조선 국내의 매체에 작품을 투고하는 방법을 제외하면, 『만선일보』에 작품을 발표하는 것이 그 유일한 경로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때 『만선일보』는 만주 지역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문이면서 만주국이 관리하고 있는 기관지로서, 허용과 검열을 통해 발표 가능한/불가능한 작품의 경계를 만듦으로써 발표되는 작품의 양상을 재단했다. 작품 담론을 중심으로 시조 담론을 분석하는 작업은 실제 작품을 바탕으로 시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매체의 허용과 검열에 대응하는 인식이 창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구해보는 일이다.

『만선일보』에 발표된 작품과 심연수 시조를 텍스트로 삼은 까닭은, 현실적으로 현재 확인 가능한 일제말기 만주 지역 시조 텍스트가 이 둘밖에 없다는 점도 있지만, 『만선일보』를 둘러싸고 이미 발표된 작품과 발표되기를 바라는 작품이 담고 있는 시조와 매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만선일보』에 시조를 발표하고 있는 시인 중 특히 이포영은 이 매체를 통해 등단하여 비교적 많은 수라고 할 수 있는 8편의 작품을 발표하며 신인으로서 문학장에 진입해가고 있는 인물이었다.¹¹⁾ 또

10) 우은진, 『1920-40년대 시조 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2의 2장과 3장의 내용을 참조.

11) 현재 확인되는 바로는 『만선일보』에 시조를 발표한 다른 이들은 대부분 1-2편

한 심연수의 경우, 다수의 습작을 하며 『만선일보』의 학생투고란에 시를 발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문학장 진입을 꿈꾸고 있었던 문학도로 판단된다. 그들은 문학장 진입을 위해 만주 지역의 유일한 조선인 문학 발표 지면이었던 『만선일보』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매체의 허용과 검열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만선일보』 발표된 시조 전반의 양상을 통해 그 매체가 허용/검열하고 있던 경계를 살펴보고, 이포영과 심연수의 작품 담론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시조 창작·발표를 고찰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현재 일제말기 만주 지역 시조에 관한 연구는 심연수 시조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만선일보』 시조를 연구한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단 한 편으로 발표된 시조 작품 전체를 고찰하고 있으나, 고향 상실과 이별의 슬픔이라는 표면적 주제의 정리에 그치고 있어서 아쉽다.¹²⁾ 한편 심연수 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의 유고들이 2000년에 와서 동생 심호수에 의해 공개된 이후 국내와 연변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의 시조에 관한 연구도 여러 편 나왔다. 그 연구들을 통해 심연수 시조의 원전이 실증적으로 정리되었으며¹³⁾, 시조부흥운동의 연장¹⁴⁾, 저항적인 디아스포라 의식의 발현¹⁵⁾, 민족의 정체성 추구¹⁶⁾ 등 심연수 시조의 의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일련의 연구들이 심연수를 ‘저항적 민족시인’으로 흔히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을 게재하고 있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그들 개개인의 문학장 진입에 대한 욕망을 작품 담론으로 읽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 12) 왕빈경, 『『만선일보』에 실린 시조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3) 황규수, 『심연수 시조 창작과 그 특질』,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 14) 조규익, 『심연수 시조 연구』, 『시조학논총』 제33집, 한국시조학회, 2010.
- 15) 임종찬, 『심연수 시조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시조학논총』 제31집, 한국시조학회, 2009.
- 16) 김원장, 『심연수 시조의 특성과 경향에 대한 연구-여행시조를 중심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박복금, 『심연수 시조의 고향 의식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29집, 한중인문학회, 2010.

심연수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¹⁷⁾

문학작품은 과거 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했는지를 탐구해보는 작업에 그 증거를 제공한다는¹⁸⁾ 점에서 그 당대 사회의 맥락과 연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일제 말기 만주 지역에서 오족협화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매체인 『만선일보』와 그 안에서 시조를 발표했던 또는 발표하고자 했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허용과 검열에 대한 수용과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실제 작품 창작에서 그 의식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기에 이것은 작품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될 것이다.¹⁹⁾

17) 현재 심연수 문학 연구들은 지역과 시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심연수를 윤동주와 비교하거나 기존의 윤동주 연구의 규정 또는 틀에 맞춰 심연수 문학의 의의를 조명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재중조선족에 의한 연구의 경우 그들 문학사의 자랑스러운 인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저항적 민족시인’으로 쉽게 추앙하고 있다.

18) 이-푸 투안, 최지원 역, 『문학과 지리학: 지리학적 연구의 함의』, 『지역문학연구』 제5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1999, 142쪽.

19) 이 연구에서 작품이 아닌 담론의 층위를 분석 범주로 삼고 있는 까닭은, 만주 지역 시조의 문학성이나 미학 측면보다는, 인표로서의 작품과 특정 세계의 존재 방식이 맺고 있는 의미론적 상관관계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적 인표, 즉 담론은 사회적·제도적 압력의 결합을 지층으로 하여 생산될 수 있다. 또한 그 담론은 지배적 담론에 도전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담론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만선일보』의 검열과 허용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사회적·제도적 압력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시조가 형성하고 있는 담론을 고찰해보고 있다. 이정우, 『담론의 공간』, 민음사, 1999, 224쪽; 사라 밀즈, 김부용 역, 『담론』, 인간사랑, 2001, 57쪽.

2. 『만선일보』의 오족협화 이데올로기와 시조 장르

1) 조선 문학에 대한 매체의 허용과 검열

『만선일보』는 1937년 10월부터 1945년 상반기까지 만주국 수도新京(新京)에서 발행되었던 한글신문이다. 만주국 만주홍보협회의 통제 아래 창간된 국책 신문이었으나, 해방 직전까지 한글로 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²⁰⁾, 조선 문인들의 발표지면인 학예면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만선일보』는 일제말기 만주에서 조선인이 한글로 조선 문학으로서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던 매체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 동시대 조선 국내의 문단 상황을 보면, 1940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1941년에는 『문장』과 『인문평론』이 차례로 폐간되었으며, 그 이후 창간된 친일 어용 문학지 『국민문학』이 1년에 일본어판과 조선어판을 각각 4회씩 발행하겠다고 초기 계획을 폐기하고 42년 5월 이후 일본어판만 발행하는 잡지가 됨으로써 조선 문학은 그 발표지면을 잃고 있었기에 그 점은 더욱 주목된다.²¹⁾ 그 외 『매일신보』 『춘추』, 『신시대』 등에도 조선 작가의 작품이 게재되었으나, 그것은 황국신민으로서 체제협력·동원적인 내용의 어용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만 한정되었다.

장르 특성상 한글로만 창작할 수 있는 시조의 경우, 조선 국내에서는 『문장』의 폐간 이후부터 해방까지 거의 발표될 수 없었다.²²⁾ 그러나 남

20) 현재 확인 가능한 『만선일보』 자료는 영인본(전5권)으로 간행된 1939년 12월 1일부터 1940년 9월 30일까지의 신문, 그리고 마이크로필름으로 확인 가능한 1942년 10월까지의 신문 일부이다. 그 자료를 통해 적어도 확인 가능한 기간 동안에는 『만선일보』에서 전면적으로 한글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1) 그뿐만 아니라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 국내 학교에서 우리말 교육은 일제에 의해 선택과목이 되었고, 1941년부터는 수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폐지 상태가 되어 있었다. 일상생활에서든 문학 창작에서든 한글 사용이 억압받고 있었던 것이다. 김홍식, 『한글전쟁: 우리말 우리글, 5천년 쟁투사』, 서해문집, 2014, 313쪽의 표 참조.

아있는 자료에 의하면, 당시 만주에서 시조는 『만선일보』를 통해 1941년 12월까지 발표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총 28편으로 시, 소설, 수필 등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적은 수이지만, 『만선일보』는 『문장』 폐간 이후 시조가 지속적으로 발표될 수 있었던 유일한 매체였다. 『만선일보』의 ‘신춘문예 현상모집’을 통해 희곡, 단편소설, 시, 아동작품뿐만 아니라 시조도 뽑고자 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공고에서 시조는 신시, 민요와 함께 시가로 묶여서 공모 장르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시조를 일반적인 문학 장르로서 공인하고 있는 매체의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편 『만선일보』의 한글 사용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만주국이 그 수립 근거로 내세운 대표적 이데올로기인 오족협화 때문이었다. 실제로는 만주사변을 일으켜 침략한 지역에 괴뢰국가를 세워 일본제국이 타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만주국은 붕괴될 때까지 표면적으로는 오족협화의 이념을 내세웠다. 그렇기에 그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원칙상 5개 민족의 언어일 수 있었고, 문학 역시 각 민족의 문학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²³⁾ 조선 문인들

22) 이광수가 1944년 7월 『신시대』에 발표한 시조는 예외적 경우이다. 이광수는 『절흔의 모습』이란 제목의 글 말미에 따로 제목을 붙이지 않은 시조 한 편을 삽입해 놓았다. 그 글에서는 전근대 조선의 한글 표기법을 사용하여 일본 천황에 대한 숭상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삽입된 시조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표기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조의 경우, 이와 같이 한글을 과거의 언어로 취급하며 일본제국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작품만이 그 시기에 예외적으로 매체에 발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기진의 <대동아전쟁송>(『조광』, 1942. 2)과 <경산시첩>(『매일신보』, 1944. 10. 19)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1920년대에 계급문학의 입장에서 시조를 비판했던 김기진은 일제말기에 와서 시조를 친일문학의 도구 중 하나로 사용했다. 그런 반면 시조시인들은 그 시기에 시조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비교가 된다. 이광수 저, 이정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2』, 평민사, 1995, 421-426쪽 참고.

23) 그러나 만주국에서는 일본어 ‘검정제도’가 실시되었으며, 타민족들은 입학·취직 시험에서 일본어를 필수과목으로 하여 자격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지점

은 그 이념이 주는 환상에 기대어 문학 차원에서 민족문화의 공생을 지향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⁴⁾ 둘째, 이주조선인을 지도하고 전시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발행된 신문이었기 때문이다. 당대 이주조선인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만선일보』는 한글로 농지 개척에 대한 기사와 함께 조선 농민들이 쌀을 추수한 돈으로 장병을 위문했다는 이야기, 조선 소년들이 장병에 지원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 등을 미담의 형태로 연일 게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글 사용의 원인은 『만선일보』에 발표되는 조선인 문학에 적용되었던 다음과 같은 허용과 검열의 내용과도 연결된다.²⁵⁾ 첫째, 오족협화를 이루는 국가의 구성원인 조선 민족의 언어와 문학이 허용되는 대신, 오족협화를 선전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작품이어야 한다. 오족협화는 존재하거나 실천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표방·주장되고 있었던 이념이기 때문이다.²⁶⁾ 둘째, 농민 대중이 대부분인 조

에서 오족협화를 표방하면서도 일본어를 국어로 만들고자 하는 일본제국의 욕망을 볼 수 있다. 남창룡, 『만주제국 조선인』, 신세림, 2000, 30쪽.

- 24) 만주국은 실질적으로는 조선·대만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통치하에 있는 식민지였으나, ‘오족협화’라는 이념 덕분에 표면적으로는 다른 식민지에 비해 제국의 동화주의가 덜 강조·강제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겉으로 주창된 ‘오족협화’라는 이념 이면에는 만주국의 지배·피지배의 구조가 있었으며, 재만 일본인은 일본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주장을 자명한 것으로 여겼다. 게다가 표면적인 것일 뿐인 민족 평등주의 이념마저도 서서히 일본인을 우선시하는 민족질서론의 성격을 드러내는 이념으로 개편되어가고 있었다. 김윤식, 『문학사의 새 영역』, 강, 2007, 128-129쪽; ; 오카다 히데키, 최정옥 역,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역락, 2008, 31쪽; 고마고메 다케시,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역,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조선·대만·만주·중국 점령지에서의 식민지 교육—』, 역사비평사, 2008, 297-298쪽.
- 25) 『만선일보』가 한글 사용과 조선 문학을 허용한다고 해도 강한 통제와 검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1939년 12월 9일 게재된 「언론의 통제를 강화」라는 기사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 26) 『만선일보』의 기사에도 협화운동에 동참하라는 내용이 자주 눈에 띈다. 오오무라 마스오는 이와 관련하여 만주국이 ‘오족협화’를 슬로건의 하나로 하고 있었던 점은, ‘협화’를 슬로건으로 강력하게 주창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불협화’가

선이주민을 주요 독자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과 그들에게 친숙한 조선 고유의 장르를 허용한다. 이주자의 대부분은 농지를 개척하여 일본제국의 식량 생산·수급에 강제로 복무해야 할 농민들이었다. 그런데 이때 발표 작품은 그들의 이주와 개척을 장려하는 내용 또는 적어도 그 상황에 비판적·저항적이지 않은 내용을 담아야 했다.

『만선일보』는 위와 같은 허용과 검열의 범주를 크게 명시해두지 않았으나, 그것들은 실제로 발표된 작품들의 양상을 검토해보거나 김창걸의 수필 『절필사』를 참고로 하면 파악 가능한 내용들이다. 『절필사』는 『만선일보』에서 소설가로 등단·활동한 김창걸이 공식적 문예활동을 중단하고 쓴 해방 전 미발표작이다.²⁷⁾ 여기에서는 『만선일보』가 문인 또는 문인지망생에게 어떤 검열과 요구를 하고 있었는지 작가의 회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만 이태에 수십편을 시험적으로 습작해보았다. 그러자 1938년 겨울에 나도 신문에 투고해보고 싶었다. 신문이라야 《만주국》에서는 당시 장춘에서 내는 M일보뿐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그저 그러그러했기에 나도 투고하면 자신이 있을 것 같았다.…(중략)…그런데 작품을 쓰는데는 아무런 저애력도 없었는가? 처음 느낀것이 자기 쓰고싶은 글을 쓸수 없다는것이였다. 원체 나의 작품이 당선되는데는 약간의 곡질이 있었다. 당시 어떤 작품이 당선되는가를 미리부터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현재 당국의 정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불만을 보여서는 안되고 될수 있는대로 썩 좋다고 하면 그럴수록 《합격》된다는것이다. 이 《진리》를 나는 알고있었으나 그 정도를 딱히는 몰랐다.

아무래도 당선은 돼야 하리라고 생각한 나는 그 《비위》에 맞춰 쓰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오오무라 마스오, 『운동주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01, 395-396쪽.

27) 해방 후 한잠이 지난 1982년에 료녕인민출판사에서 출판된 『김창걸 단편소설선집(해방전편)』에 『붓을 꺾으며』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작품 말미에 ‘1943년 겨울 교하에서’라고 하여 창작 연대와 장소를 명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표준》으로 원고를 올리려고 내리쬐고 하면 서마치 현사회가 《태평성대》인 듯이 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²⁸⁾

장춘, 곧 신경에서 발행되는 M일보는 바로 『만선일보』를 가리킨다. 김창걸은 『만선일보』에 단편소설과 시, 시조, 민요 등을 투고했다. 그는 그 전에 『만선일보』에 이미 게재되고 있었던 작품을 읽어보고, 그 작품들이 조선 국내 신문에 게재되는 작품들보다 그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반면 내용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당선 요령을 터득했다. 그 공통점은 만주국의 체제와 현실에 대해 비판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는 옹호하는 것이었다. 『만선일보』는 만주홍보협회의 관리와 통제 아래 간행되고 있었던 만큼 압수나 삭제 조치가 아니라 등단과 발표의 기준을 통해 그 피지배자의 문학을 제한하고 감독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 따르면, 『만선일보』도 1943년에 들어서면 ‘지정 제목에 지정 내용을 붙여’ 쓰도록 노골적으로 강요하였으며 학예면에서도 일본어 창작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1941년 3월 만주국 홍보법처에서 ‘문예지도요강’의 제기를 통해 만주 문예는 일제 식민주의 생산물이어야 한다는 ‘사상문화 전제정책’을 주장한 이후,²⁹⁾ 『만선일보』도 문인들에게 일본제국이 요구하는 특정한 내용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전보다 노골적인 강요를 하며, 그와 함께 식민주의 문화와 언어를 강압적으로 이식하고자 하는 태도를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28) 김창걸,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3집 김창걸 문학편』, 중국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2003, 314-316쪽

29) 남창룡, 앞의 책, 36쪽.

30) 조선 국내에서는 문인에 대한 이러한 억압이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가속화된 총동원체제에 의해 이미 가해지고 있었다. 그 전에는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주제를 한정하는 것이었다면, 그 시기에는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주제를 강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조선의 독립이나 체제 비판 같은 것을 정면으로

『만선일보』에 현재 확인 가능한 28편의 시조가 실리는 동안, 즉 1941년 12월까지의 대체적으로 김창걸이 등단했던 때와 같이 쓰지 말아야 하는 주제의 제한과 쓰면 더 좋은 주제에 대한 권장 정도의 검열이 존재하는 시기였다고 판단된다. 문체는 시인이 그것을 얼마나 소극적/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에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검열의 잣대가 강력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매체가 담지하고 있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우회적으로 비타협적인 대응을 하는 작품 담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2) 「학예란」의 시조 담론-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의 양상

앞서 살펴 본 김창걸의 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체가 가진 검열의 기준은 신춘문에 당선작의 선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은 문학도들의 창작에 영향을 미친다. 당선된 작품이 작가를 지망하는 문학도들에게는 모범적인 작품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심사평을 통해 특정 경향에 대한 지도가 구체화되기도 하면서 매체가 지향하는 기준을 수용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만선일보』에서 실시한 신춘문의 경우, 심사위원도 밝히지 않을 정도였기에 심사평은 부재했지만, 어떤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 검열의 기준을 짐작할 수 있다.

달밝은 이한밤은 사슴이도 서른지고
 눈속에 발을뚫고 밤을새워 우는고녀
 客窓에 쓰러진몸이 잠못일워하노라.

미투리 단보썸에 집난지 열두해라
 이내 서름인들 오죽이나 하울것가
 사슴이 목매인우름에 둘데업는 이마음.

다루지만 않으면 되었다면, 이후에는 식민 지배 당국의 정책을 문인들이 대변하
 기만 해야 했던 것이다.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5, 185쪽.

山家에 밤이깊혀 잠들쌔도 되엇건만
그무삼 서름이기 그칠줄을 모르고서
기나긴 이한밤을 울어새려 하느니.

- 최인욱, <山家에 쉬면서> 전문-31)

1940년 1월 11일에 『만선일보』에 게재된 최인욱의 시조에는 ‘당선시조’라는 표시가 붙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客窓에 쓰러진몸’, ‘집난지 열두해’라는 표현을 사용해 화자가 고향에서 떠나온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향의 상황에 대해 서러움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향의 원인이나 현실의 고달픔 등은 작품 속에서 표면적으로도 암시적으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서러움은 고향을 떠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로 나타날 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절박함이나 떠나와 살고 있는 현재 삶의 고달픔 등과 연결되지 않는다. ‘미투리 단보짚’만 챙겨서 초라한 행색으로 고향을 떠나왔다는 구절이 짧게 제시되어 있으나, 이향의 서러움을 담은 울음이 달 밝은 밤에 눈 속에서 사슴이 우는 신비로운 정경과 맞물림으로써, 서러움은 이향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한 시대상황이라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보게 하기보다는 향수에 의한 서러움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정서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

보편적인 그리움이나 향수는 우리 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일제의 지배에 의해 만주국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일제말기의 조선인이 이별과 그리움, 향수를 말하면서 그것을 보편적인 정서 차원에서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담론의 차원에서 ‘말할 수 없음’의 상황이나 ‘말하지 않음’의 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보편적인 그리움 또는 향수를 담고 있는 작품은 ‘저항하거나 비판하지 않음’이라는 차원에서 『만선일보』가 허용한 문학의 표현 가능 범위였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만선일보』에 발표된 시조 중에는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작

31) 『만선일보』, 1940. 1. 11 조간.

품들이 많은데, 이포영의 <가신 님>과 <片思>, 남정일의 <吹笛>, 佳木 欺 公鳴의 <北國 구즌 비>, 장인학의 <이별보>와 <달밤> 등이 이에 해당된다.

故鄉 떠나는 날 진달래 석어 훑고
하룻밤 오구나니 눈이 상기 싸헛구료
찬바람 滿洲 별관에 바로 예가 거길세

사나히 城을 찻코 婦女들은 흙을 날나
創世記 神話처럼 새 部落은 이뤄짓다
아들딸 代代孫孫이 이 쌍 우에 사오리

흰히 트인 들은 널고 쏘한 기름진 데
우린야 소를 모라 거친 쌍을 일구느니
地平線 저 넘어로 봄바람은 불어온다

— 윤해영, <척토기>—32)

1941년 1월 15일에 선외가작으로 뽑힌 위의 작품을 통해서 『만선일보』를 관리하고 있었던 지배세력이 문학인들에게 권장한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시조는 당선작이 아닌 선외가작으로 뽑혔지만, 이후에 협화회가 출간한 책에 시조 작품으로서는 유일하게 재수록됨으로써 그 내용이 만주국 체제의 기대와 필요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이 작품에서는 고향을 떠나 만주 별관에 도착한 조선인들이 땅을 개간하고 부락을 만드는 것을 ‘창세기 신화’에 비유하고 있다. 만주로 이주해 와서 주거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빈 땅 위에 모든 것을 맨손으로 새롭게 세워야 했고, 고향과는 토양과 기후가 다른 곳에서 척박한 땅을 농지로 개간해야만 했던 재민 조선인의 고달픔을 감안한다면 이는 지나

32) 『만선일보』, 1941. 1. 15 조건.

친 미화이다. 또한 만주가 ‘넓고 기름진 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조선인의 이주를 장려시키기 위한 일제의 거짓 선전 내용에 포함되는 말이었다. 즉 이것은 ‘왕도낙토’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었다.

한편 『만선일보』는 내용이 검열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작품의 형태가 장르의 고유 형식에서 벗어나도 개의치 않았다. 즉 당선작을 선정할 때, 형식적 측면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앞의 두 작품 모두 셋째 수 종장에서 시조의 율격 형식에서 벗어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시조 형식의 기본적인 제약에는 반드시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3음절이어야 하고 두 번째 음보는 5음절 이상의 과음보이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이는 근대문학장의 시조론에서도 시조 형식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인정받아 당대 시조 창작에서 지켜지고 있는 규칙이었다. 그런데 학생투고나 독자투고도 아닌 신춘문예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키지 않은 작품을 지망생들에게 모범으로 인식될 당선작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만선일보』가 조선 문학의 장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시조의 형식을 지키지 않은 예는 일반 발표 작품 중에서도 찾을 수 있다. 김동식의 <탄식>(1940. 5. 2)의 경우 ‘시조’라고 장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나, 초·중·종장의 3장 구조를 지키지 않은 채 첫째 수와 둘째 수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장의 첫 음보 3음절과 둘째 음보 과음보의 제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박상훈의 <離鄉>(1940. 5. 4) 또한 시조 종장의 제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각각 한 편씩의 시조만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들로, 『만선일보』를 통해 등장한 신인 시인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작품은 내용상 『만선일보』의 지향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작품이 아니라면 장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도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던 만주문단의 현실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런 한편 내용 면에서 김동식의 <탄식>과 박상훈의 <이향>은 향수

를 그 주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각각 전자는 가난한 이주민이 겪은 삶의 고달픔을, 후자는 떠밀리듯 이향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한 암시와 고향을 바탕으로 한 의지를 함께 드러냄으로써, 앞서 언급한 보편적인 그리움 또는 향수를 표현한 시조들과는 다소 변별되는 지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도 표면상 개인의 불행과 슬픔 차원에서 다루어질 때, 『만선일보』의 검열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선일보』에 발표된 시조 작품들은 대부분 만주 지역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는 동시에,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선전하지도 않는 소극적 수용의 태도를 보였다.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문 지면에 발표될 수 있었다. ‘오족협화’나 ‘왕도낙토’라는 용어를 작품 표면에 드러내거나 체제 옹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조는 앞서 언급한 윤해영의 <적토기> 외에 이포영의 <예서 기리사리다>, 송지영의 <壯行詞> 이렇게 총 3편에 불과하다. 다른 작품들은 대체로 보편적인 정서의 표출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현실의 부정성과 그 원인을 외면하고 있거나 드러내지 않는 경우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선일보』에 시조를 발표한 사람은 총 13명인데³³⁾, 대부분 1-2편의 시조만을 발표하였으므로 그들을 모두 시조시인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렵다. 한편 송지영과 송철리와 같이 조선 문인이 만주로 이주해가서 『만선일보』에 시조를 발표한 경우도 발견할 수 있으나, 그것은 비교적 소수에 해당한다. 다른 이들은 만주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로서 『만선일보』에서만 적은 수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신인들이었다.

송지영과 송철리의 경우에도 조선 국내에서 시조시인으로 활동하던 인물은 아니었다. 송지영은 조선 국내에서 1935년부터 소설가이자 언론

33) 시조를 발표한 시인들은 이포영(8편), 송지영(5편), 한해룡(3편), 장인학(2편), 김동식(1편), 김춘강(1편), 남정일(1편), 박상훈(1편), 송철리(1편), 윤해영(1편), 이응진(1편), 최인한(1편), 황금성(1편), 佳木欺 公鳴(1편)으로 총13명이다.

인으로서 활동한 인물로서 1938년에 『동아일보』 특파원의 신분으로 만주 지역으로 갔다. 송철리 역시 1930년대 중반부터 조선 국내에서 시를 발표하기 시작한 인물로서 1937년 무렵부터 만주에 거주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³⁴⁾ 그들은 『만선일보』 내에서도 시조가 아닌 다른 장르의 작품을 더 많이 발표했다.

송철리는 『만선일보』에 시조 1편 외에 자유시 16편, 소설 1편, 동시 1편, 동화 1편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의 자유시 작품에서는 만주국의 정책적 선전 문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³⁵⁾ 그런데 그와 달리 1939년 12월 18일에 발표된 시조 <鷹獵>의 경우, 겨울철에 매잡이를 하는 정경을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이 태백에 비유하며 낙관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에서 만주에서의 삶을 소극적으로나마 긍정하는 듯한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송지영은 『만선일보』에 5편의 시조를 발표했는데, 흥미롭게도 그 작품들이 빚어내는 담론 속에서 체제에 대한 순응과 갈등의 태도를 함께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잘 보여주는 두 편의 작품을 비교해보도록 한다.

安否를 묻는 길이 오며 가며 壯하시라
 壯한 길 간데 족족 우슴삿을 치우시라
 오는 날 모다 吉報를 선물 삼아 주시소(1수)

외진 골 험한 모퉁 괴로움을 닷할 손가
 兄弟 두루차자 싸뜻한 손 잡아지다
 손잡아 얼킨 情懷를 느껴 풀어지이다(4수)

34) 박경수, 「만선일보 소재 동시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38집, 우리문화회, 2013, 436쪽.

35) 김영주, 「제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복합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24쪽.

어허! 반가운 손 네 아우며 내 뉘일다
三家村 서로 불러 판을 벌려 마즈리다
이 가을 豊年이라니 얼굴 먼저 흰하리(5수)

- 송지영, <壯行詞> 부분-36)

거울 속 비친 나를 나 아닌 양 의심는 나
내요 나 아님을 내 어이 모르랴만
알듯이 모르는 나를 더욱 몰라 하노라(1수)

새 길두 大同大街 넓고 아니 시언한가
내대로 오고간들 어느 뉘라 탓할가만
구태여 옛 길을 차자 나는 외로 예뉘네(3수)

너하나 그릇칠가 열 번 다져 타일르고
아침 저녁 날에 가로세로 고엿거니
행여나 모진 마음이 돌아설가 저허라(5수)

- 송지영, <寄懷五章> 부분-37)

<壯行詞>는 '祝 開拓地 慰問團 一行 出發'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음으로써 만주국의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작품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제목과 부제에서 이미 만주 지역 이주민의 개척 현장을 위문하러 가는 일행의 출발을 장한 행보라고 말하고 있는 지점에서 그러하다. 텍스트 본문에서는 전체적으로 개척지에서 만나 서로 안부를 묻고 따뜻한 정을 느끼며 개척의 괴로움을 잊자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풍년이 들 것이라는 낙관적 희망을 말하고 있음으로써 낙토로서의 만주 이미지를 여실히 그려내고 있다.³⁸⁾

36) 『만선일보』, 1940. 8. 20. 괄호 속 표기는 연구자가 한 것임.

37) 『만선일보』, 1941. 1. 22.

38) 한편 송지영은 <將離別>에서 이주지인 만주를 고향처럼 여기려고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주를 반복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체념이 깔려 있어서, <장행사>에서 보여주는 낙관적인 태도와는 변별되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 반면, <寄懷五章>에서는 현실에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시조 속에는 거울에 비치는 표면적인 ‘나’의 모습을 ‘나’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화자는 거울에 비치는 ‘나’는 분명히 ‘나’일 테지만, 그럼에도 그 ‘나’를 잘 알 수 없다고 진술한다. 표면의 ‘나’는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내면의 ‘나’와는 서로 이해 불가능한 또 다른 ‘나’인 것이다. 새 길은 시원한 ‘대동대로’이지만, 자신은 ‘옛 길’을 찾아서 걷고 싶다는 구절에서 이 ‘나’의 분열은 만주국의 새로운 체제를 걸음으로는 긍정하지만 자신은 그 체제 이전의 상태를 찾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새 길두 大同大街 넓고 아니 시언한가’라는 구절만 보면 새롭게 닦인 길, 곧 개척된 땅이나 만주국의 새 수도 신경에 대한 찬양처럼 읽힌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은 ‘옛 길’을 찾아 걸겠다는 언술이 바로 뒤에 나옴으로써 ‘새 길’은 걸보기에는 긍정적이지만 애정을 가질 수 없는 대상이 된다. 이때 화자가 애정을 가질 수 없는 대상을 찬양하며 자신도 알 수 없는 ‘나’로 살아가는 까닭은 ‘너’를 그리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된다. 체제에 순응하는 태도는 소중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속으로는 따르고 싶지 않아도 걸음으로는 그 마음을 타이르며 그런 척 하는 것일 뿐이라는 고백으로 들린다.

이러한 해석은 송지영이 1943년에 일본 경찰에 의해 피검되어 1944년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2년 선고를 받았었다는 사실과 맞물려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그는 <장행사>와 같은 만주국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는 것 같은 시조를 썼지만, 그 내면에는 그것에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송지영은 『만선일보』에 시조를 발표한 다른 신인 작가들과는 다르게 기성작가로서 체제선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박을 받았으리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그는 그 압박에 따랐으나,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회의를 느꼈을 것이다. <기회오장>에서는 그러한 갈등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기회오장>을 발표한 시기는 1941년으로 거부의 자세를 단호하고 분명한 표현으로 현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나타낼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만선일보』에 게재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체제 안에서의 균열을 표면화할 수 있었다고 본다. 송지영은 <寒夜吟>, <모 뮈瑞林 兄>에서도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만선일보』라는 매체 위에서 시조의 작품 담론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타협적 대응이었다.

3. 『만선일보』 검열의 영향과 문학인으로서의 욕망

1) 신인 시조시인의 활동-이포영의 경우

이포영은 『만선일보』에 비교적 시조를 가장 많이 발표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의 시조는 총 8편에 지나지 않고, 다른 매체에서도 그의 작품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어떠한 작품 세계를 이루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³⁹⁾ 그러나 그가 『만선일보』에 발표한 시조들을 연결하여 읽어보면, 그의 작품들이 당시 『만선일보』의 허용·검열 범위와 그 안에서 조선 문학인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내적 갈등 또는 선택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유용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대여 잘가시오 부대평안 잘가시오
바람찬 둔화역에 울며당신 보내노라
기차도 뜻잇슴인지 슬픈고동 울리네(1수)

39) 이포영에 대해서는 『만선일보』에 실린 시조 8편과 시조 말미에 표시되어 있는 ‘둔화’라는 창작 장소이자 거주지로서의 지명 외에는 밝혀진 정보가 별로 없다. 여기에 1935년 8월에 『조선문단』 현상문예에 응모했다가 시조 부문에서 선외가작으로 그 이름이 오른 기록만 더 있을 뿐이다. 이때 주소는 길림성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포영은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이었을 것이라는 점과 시조시인을 지망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만선일보』로 등단하여 그 매체에서만 활동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두리서 가치온길 당신혼자 가시든가
이럴줄 알엇드면 함께나마 오잔을걸
몰으고 왓든길이니 누를원망 하리오(2수)

써나며 웃고가신 마즈막 그우슴이
지금도 눈감으면 두눈속에 보혀지네
그우슴 늘보기위해 소경되려 합니다(5수)

- <送君於敦化站> 부분 -40)

이포영의 시조는 위의 작품과 같이 이별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위의 작품에서는 만주 돈화역에서 이별한 이에 대한 정한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만주로 떠난 이주의 사실과 이주해온 곳에서 ‘당신’을 떠나보내면서도 자신은 갈 수 없다는 내용에서 이주 조선인의 실향과 이별, 의지와 무관한 정착 등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한 부정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별의 슬픔만 부각되어 있을 뿐 그 이별의 원인은 감추어져 있음으로써, 그 이별이 그저 보편적인 연인의 이별 상황으로 여겨지게끔 한다. 게다가 마지막 수의 “웃고가신 마즈막 그 우슴”이라는 구절은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당신’의 자발적인 의지인 것처럼 읽히게 하고 있다. 또한 “그우슴 늘보기위해 소경되려 합니다”라는 마지막 구절 또한 시의 내용을 이별한 연인에 대한 보편적인 그리움 그 이상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이는 『만선일보』에 발표된 시조의 전반적 경향과 맞닿아 있는 양상이다.

써나온 고향이니 생각한들 멧하렷만
荒原에 달빚기고 胡弓소리 들릴새면
살구쫓 피는내고향 안그릴수 업노라(1수)

그새일 생각하면 생각사록 그리우나

40) 『만선일보』, 1939. 12. 23 조간. 괄호 속 표시는 연구자가 한 것임.

눈물로 셔난고향 다시가진못할것을
情들면 고향안되리 가서무엇하리오(4수)

滿洲라 널븐쌍은 갈아내도 남는구료
밤이면 胡酒들고 아리랑에 흥도김소
나라도 五族協和니 예서기리 사리다(5수)

- <예서 기리사리다> 부분 -41)

위의 시조에서 이포영은 이주 조선인으로서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고향에 다시 갈 수 없으리라는 인식은 당시 이주 조선인들의 애환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가서무엇하리오”는 체념의 표현으로 읽히며, 그러한 귀향에 대한 체념이 “정들면 고향안되리”라는 만주 정착의 의지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향수와 이주민의 현실 직시를 담은 내용으로 읽힌다.

그런데 마지막 수의 내용이 매우 문제적이다. ‘오족협화’라는 만주국의 이념을 시조의 표면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주를 “갈아내도 남는” 풍요의 땅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 농민의 이주를 증가시키기 위해 일본제국이 선전했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다. 그러나 당시 이주 조선인들은 만주에 도착하여 일본제국의 전시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일본인 개척단도 포기한 척박한 땅을 농지로 개척해야 하는 고달픈 현실과 마주해야 했으며, 일본제국이 이주의 대가로 약속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더욱 힘든 생활을 꾸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현실을 “아리랑 흥도” 깊게 일어나는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길가는 저아가씨 옷은비록 푸르것만

41) 『만선일보』, 1940. 3. 6 조간.

그얼골 생김생김 거름것는 그 맵가씨가
분명코 조선의 아가씨 뉘아니라 말하리

못노니 저아가씨 다홍치마 다 어찌고
푸른빛 그런옷을 아니그래 입단말요
누라서 그런말못소 만주쌍도 몰라보

난정말 못보겟소 안타까워 난 못바요
히맑은 당신마음 잘못될까 난 못바요
옷이야비록푸를망정 마음 마저푸지르리

- <靑服의 處女> 전문 -42)

그러나 이포영이 만주 생활을 무조건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위의 작품에서는 만주에 이주하여 살면서 조선의 ‘다홍치마’가 아닌 만주의 ‘푸른 옷’을 당연하다는 듯 입고 있는 ‘아가씨’를 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가씨’는 비록 ‘푸른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그 얼굴 생김과 걸음걸이에서 조선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만주의 생활과 풍습에 익숙해졌지만, 조선인으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모습이다. 만주의 협화에 어우러져 조선인으로서 존재하는 것, 이는 조선 국내에서 강요되던 ‘내선일체’가 아닌 만주에서 표방되던 ‘오족협화’의 이념에 이포영이 걸었던 희망 혹은 환상이었을 것이다. 그런 한편 마지막 수에서 만주의 생활과 이념에 완전히 융화되어 조선인으로서의 마음, 곧 정체성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도 보임으로써, 그러한 이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표출하기도 한다. ‘푸른 옷’을 입었으되 마음까지 그것에 물들지는 않으리라는 종장은, 표면적으로는 지배적인 체제를 따르지만 그 내면에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신을 지켜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⁴³⁾

42) 『만선일보』, 1939. 12. 29 조간.

43) 김영주의 논문에서는 청복을 입은 처녀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청복을 입은 민

‘오족협화’와 그 속에 포함되어 살아갈지라도 완전히 포섭되지는 않겠다는 생각, 즉 일본제국이 내세운 이념에 저항하지는 않지만 그 이념의 진짜 의도는 따르지 않겠다는 생각은, ‘오족협화’의 표방과 실체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즉 그것은 ‘오족협화’가 가지고 있는 균열을 파고들 때 가능한 생각이었다. 한편 결국 속으로는 거부하더라도 겉으로는 수용할 때, 그 이면을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지 않으면, 거부의 의미는 쉽게 소멸 또는 부인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포영의 경우, 다음 시조에서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균열의 흔적을 소극적으로나마 드러냄으로써, 담론 차원에서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숨은 거부의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富貴 功名을 실타할이 잇스렷만
어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는젠가
淸貧도 分福인지 나는그도 못누려

- <分福> 부분 -44)

일본제국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소극적 저항, 그 사이에 서 있는 이포영의 자각을 드러내는 시조이다. ‘부귀공명’을 누리고 싶지만, 당시 만주에서 그것은 적극적인 협력을 하지 않는 한 힘든 일이다. ‘청빈’하게 지조를 지키며 사는 것 역시 일제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현실에서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삶이다. 분복, 즉 타고난 운명이란 앞의 작품들의 맥락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만주라는 시공간적 현실 위에 놓

죽, 즉 중국인과 만주인에 대한 비하 감정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 이포영을 체제지향적인 시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만주국의 민족 간 균열 상황과 이포영의 『예서기리사리다』를 고려하여 그 맥락에서 『청복의 처녀』를 볼 때 이는 타당해 보이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포영의 다른 시조 작품들을 모두 함께 살펴볼 때, 표면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는 듯 보이면서도 완전히 순응하지 못하고 소극적 저항을 품고 있는 그의 내부적 균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김영주, 앞의 논문, 38-39쪽.

44) 이포영, 『分福』, 『만선일보』, 1940. 3. 6 석간

여 있는 사람이라는 점과 그가 지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삶을 영유해가고 싶은 생활인이기도 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 읽힌다. 그러한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은 『만선일보』의 검열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가장자리에서, 즉 현실을 비판하지도 않지만 대체적으로 적극 옹호하는 내용도 아닌 시조를 쓰게 했다고 본다.

더불어 이 작품 이후 <清遊>(1940. 5. 16)라는 시조를 끝으로 『만선일보』에서 이포영의 작품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그가 지냈던 내부의 균열을 짐작하게 한다. 1939년 12월부터 1940년 5월까지 『만선일보』에 8편의 시조를 발표한 이포영은 그 이후 절필한 것으로 보인다. 1942년 10월까지 일부이긴 하지만 『만선일보』의 원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 이후 이포영의 시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현실상황에서 청빈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분복>과 다 벗어버리고 자연에서 살고 싶다는 체념적인 내용의 <청유> 이후 발표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이를 바탕으로 이포영의 작품들은 시조시인이 되기를 지망하는 까닭에 자신의 작품이 지면에 발표되게 하기 위하여 『만선일보』의 허용 범위를 지키고 권유 사항에 따라 보았으나, 그 현실에 완전히 순응한 채로 살기에는 내부의 갈등을 견디지 못했던 만주 지역 조선 문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문학도의 시조 창작-심연수의 경우

이포영이 『만선일보』로 등단하여 시조를 창작·발표했던 신인 시조시인이었다면, 심연수는 만주 지역 이주 조선인으로서⁴⁵⁾ 학생 신분으로 『만선일보』를 통해 등단하여 문인이 되기를 희망하던 문학도였다. 그는 용정 동흥중학교 3학년 때 시 「대지의 봄」을 『만선일보』(1940. 4. 1) 학생

45) 심연수는 1918년 강릉에서 태어나 1925년에 가족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했다가 1930년부터 만주로 옮겨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고란에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총 5편의 시를 『만선일보』에 게재했던 시인 지망생이었다. 그는 많은 작품을 습작하며, 문인이 되기를 열망했으나⁴⁶⁾,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해방 직전인 1945년 8월 일제 관련 인물에게 피살되어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작노트 8권에 시, 시조, 수필, 소설, 그리고 1년 치 일기와 편지 등을 남겼는데, 그 유고들은 2000년에 와서 동생 심호수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20세기중국조선족문학사료전집 제1집:심연수 문학편』(중국 연변인민출판사)으로 정리되어 출간되었다.⁴⁷⁾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심연수에 대한 연구는 그를 ‘저항적 민족 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논의가 많은데, 그렇게 규정하기 위해 심연수의 생애를 일부 왜곡하거나 논의와 모순될 수 있는 작품은 일부러 제외시키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해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이성천의 연구논문 두 편을 통해 이미 제기된 바 있다.⁴⁸⁾ 그러한 문제 제기에서 더 나아가 이 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발표지면으로서 『만선일보』의 검열 문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외된 작품의 의미와 그것을 포함한 심연수 문학의 한 부면을 고찰해보는 것이다.

심연수는 70여 편의 미발표 시조 작품을 남겼는데,⁴⁹⁾ 그 중 64편은 1940년 5월 5일부터 22일까지 조선과 중국 북부 일대를 유람했던 수학여행을 통해 창작한 기행시조이다.⁵⁰⁾ 그렇기에 심연수 시조에는 조선과

46) 시집 발간을 꿈꾸며 자신의 습작 중 48편의 시를 선정하여 그 ‘목차’와 ‘심연수 시집’이라는 표제까지 써두었을 정도였다.

47)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책들을 심연수 시조의 자료로 삼고 있다. 심연수, 『20세기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1집 심연수 문학편』, 중국조선민족 문화예술출판사, 2004; 심연수, 『소년아 붉은 오려니』(심연수 시선집), 강원도민일보사, 2001; 심연수 저, 황규수 편, 『비명(碑銘)에 찾는 이름』(심연수 시선집), 아송, 2010.

48) 이성천, 『재만 시인 심연수 문학연구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어문연구』 제70호, 어문연구학회, 2011. 12; 이성천, 『재만 시인 심연수 문학의 실증주의적 고찰』, 『국제어문』 제60집, 국제어문학회, 2014.

49)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미발표작이지만 작품 끝에 창작일자(를) 명기해 놓고 있어 언제 쓰인 작품인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만주 지역의 지명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양의 남쪽을 안고서 흘렀으니
오백 년에 생긴 일 모두다 알리라
참상을 보고서는 동정에 울었느냐
(1940. 5. 10)

- <한강> 부분 -

朝會 하시웁던 궁정엔 풀이 수두룩
丹淸한 추녀 밑엔 쇠 그물 치어졌다
쇠 그물 없다 한들 汚鳥야 깃들일쏘냐.
(1940. 5. 11)

- <경복궁> 부분 -

國賓이 놀던 곳도 이곳이 그였지만
國賓 없는 오늘엔 주인도 안 놀겠지
흙밭에 더러워진 石階는 누구의 所行인고.
(1940. 5. 11)

- <慶會樓> 부분 -

위의 시조들에서 심연수는 오백 년 역사를 이어온 조선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침탈당한 것을 ‘참상’이라고 말하며 피식민지 민족의 심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국권 상실로 퇴락하게 된 경복궁에는 일본제국이 보호라는 명목으로 두른 ‘쇠 그물’이 흉물스럽게 쳐져 있다. 그러나 경복궁은 그러한 보호가 없어도 더러운 새가 날아들 수 없는 신성한 장소이

50) 심연수의 기행시조 창작은 『노산시조집』(1932) 독서와도 연관이 있다. 심연수는 그 시조집을 읽으며 이은상에 대한 흥미를 일기에 남기기도 했고, 또한 그 시조집의 여백에 이은상의 시조를 모방한 습작시조를 써두기도 했다. 이때 『노산시조집』에는 국내의 명승지를 다니며 창작한 기행시조가 대거 수록되어 있었다. 이은상, 『노산시조집』, 한성도서, 1932; 심연수(2004), 앞의 책, 277쪽; 황규수 편, 『심연수 원본 대조 시전집』, 한국학술정보, 2007, 506-512쪽.

다. 오히려 경복궁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쇠 그물’이다.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은유로 읽히는 내용이다. 또한 번성했던 경회루를 황량하게 만든 ‘흙밭’은 그렇듯 조선을 억압하고 있는 일제에 대한 비판이다. 『마의태자릉』(1940. 5. 8)과 『송도』(1940. 5. 12)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나라 잃은 심정을 ‘한’과 ‘서러움’으로 표현한다. 가는 장소마다 ‘신라’, ‘고려’(『마의태자릉』), ‘왕건’(『송도』) ‘단군’, ‘주몽’(『대동강』, 1940. 5. 13) 등으로 조선의 장구한 역사를 호출하며 민족의식을 일깨우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심연수는 민족시인으로 호명되고 있다.

심연수에게는 조선의 “한쪽각 남은 기와도 빛나던 옛 글테기”(『송도』)로 다가온다. 그에게 조선은 민족의 상실된 고향으로 인식되며,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는 국권 상실 이전의 민족 역사를 긍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심연수는 그러한 인식을 기행시조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1930년대에 이병기, 이은상 등 조선 국내 시조시인들이 기행시조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유사한 것으로, 조선의 고적을 조선인의 실감실정으로 보고 표현하지는 시조혁신론의 연장이었다. 심연수가 이은상의 시조집을 바탕으로 시조 습작을 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심연수가 기행 시조에서 보이는 태도는 1930년대 시조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의 독자적인 민족의식은 아니었다. 다만 시조 장르를 통해 민족의식을 이어나가고자 했던 시조 담론을 수용하여 시조 창작을 시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1940년대에 이러한 내용은 체제의 검열에서 벗어나 있는 미발표작이기에 가능한 내용이었다. 당시 『만선일보』의 검열은 시조 장르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그 내용 면에서는 엄격한 통제를 했다. 김창걸의 글을 참고하면, 정몽주와 그 어머니의 고시조를 인용하여 쓴 글을 기고했는데, 그 즉시 그러한 인용에는 만주국과 일본제국을 부정하는 정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⁵¹⁾ 고시조라고

할지라도 절개를 드러내는 작품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심연수가 만주 지역 조선인으로서 체제의 허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작품을 여러 편 창작하고 있었던 사실은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는 문학도로서 등단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위해 만주 지역의 유일한 매체인 『만선일보』의 이데올로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심연수의 시조 중 예외적인 작품을 탄생시켰다고 본다.

크나큰 집도 보고 넓은 거리도 보았건만
내게는 못할세라 맨 땅인 용정이러니
마음이 가는 곳은 낮익은 이곳뿐이다
(1940. 5. 22)

- <용정 역두에서> 부분 -

국도(國道)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어라
가두에 가고오는 오족(五族)의 웃음소리
이 아니 왕도낙토(王道樂土)가 다른 데 없으이다

대동가(大同街) 아스팔트 남으로 뻗었으니
남방(南方) 서상(瑞祥) 들어옵시다 이 나라 서울
대만주(大滿洲) 도읍터에 길상(吉祥)이 내리소서
(1940. 5. 19)

- <신경(新京)> 전문 -

두 번째 시조가 바로 ‘민족적 저항시인’이라는 명명에 모순을 일으키며 선행연구에서 제외되고 있는 작품이다. 신경은 만주국의 수도이다. 심연수는 이 도시를 행복하고 희망찬 장소로 묘사하며, 오족협화와 왕도낙토라는 만주국의 이념을 글자 그대로 작품 속에 노출하고 있다. 이 시조는 앞의 기행시조들과 같은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라 연구자들에게 더

51) 김창걸, 앞의 글, 317-318쪽

욱 당혹감을 안겨줬을 것이다.

심연수가 가진 만주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시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낮익은 이곳”으로, 크고 훌륭하진 않지만 익숙한 삶의 터전, 생활공간일 것이다. 저항적이지도 못하지만, 협력적이지도 않은 의미이다.

유독 『신경』이라는 시조에서만 친일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이유는, 김창걸이 『절필사』에서 밝혔던 『만선일보』 신춘문에 당선 요령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국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 최소의 기준이라면, 찬양을 할수록 당선 가능성은 높아진다. 당시 만주에서 조선인 문학의 발표지면은 『만선일보』밖에 없었다. 그리고 심연수는 일기에 문인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며(1940. 3. 26) 부러움을 직접적으로 거듭 드러내고 있을 정도로 문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는 문인을 가리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나타낼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1940. 2. 16), 그러한 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식민 지배 당국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 모순적 현실과 맞닥뜨린 것이다. 심연수는 수학여행을 떠나던 날인 1940년 5월 5일에도 『만선일보』 학생투고란에 자신의 시가 게재되게끔 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작품을 투고했다. 그것으로 보아 문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만선일보』라는 지면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경』은 실제로 투고하지는 않았으나, 학생투고가 아닌 신춘문에 현상모집에 응모하기 위해 창작해본 욕망의 산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4. 나오며

1937년 7월, 일본의 도발로 중일전쟁이 발발했다. 그것은 ‘아시아 해방

의 꿈'을 표방한 일제의 팽창적 식민주의였다. 중일전쟁 발생 직전 성립한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내각은 9월에 들어서자 국가의 총력을 다진다는 기치 하에 '국민정신 총동원운동'에 착수하였으며, 1939년 4월에는 신방침(新方針)을 채택, 일본은 동아신질서를 건설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려는 세력은 배제하겠다는 불퇴전의 결의를 국민들에게 촉구하고 나섰다.⁵²⁾ 이와 같은 시기에 조선 국내에서는 미나미 지로 총독에 의한 '내선일체'의 구호가 조선인들을 억압했고, 전시체제와 오죽협화를 선전하는 『만선일보』가 창간되었다.

『만선일보』는 학예란을 운영하며 시조를 비롯한 조선인 문학의 발표지면이 되어 한글 문학 창작을 허용했으나, 거기에는 내용의 검열이 존재했다. 28편의 시조가 발표되던 1939년 12월부터 1941년 12월까지 그 검열은 어떤 내용을 반드시 쓰라는 강요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않았지만, 이데올로기와 현실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써서는 안 된다는 금지와, 이데올로기와 현실에 대해 옹호하는 내용을 쓸수록 좋다는 권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작품을 뽑는 기준이 되기도 했으며, 작품의 질에 우선하는 요건이 되었다. 따라서 만주에서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싶은 기성 문인이나 새롭게 문인으로 등단하고 싶은 지망생은 그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만선일보』를 둘러싼 시조 담론을 살펴 보았다.

특히 『만선일보』를 통해 등단하여 시조시인으로서 문학장에서 활동하고자 했던 이포영의 시조와 그 매체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기를 바라며 창작을 했던 심연수 시조를 중심으로 그 작품 담론을 고찰해 보았다. 이포영 시조의 경우, 『만선일보』 지면 위에서 지배이데올로기와 검열에 대한 수용의 양상과 함께 그에 대한 내부적 갈등을 함께 드러내었다. 그리고 심연수의 경우, '민족'과 '전통'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 조선 문학 장

52)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 논형, 2007, 177쪽.

르로서 시조를 재인식했던 1920-30년대 조선 국내의 시조 담론을 적극 수용하여 시조를 창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만선일보』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시조 1편을 남기기도 함으로써 문학도에게 문학장 진입 경로로서 매체가 가지는 영향력을 짐작하게 해주었다.

일제말기 만주에서 창작된 시조들의 작품 담론을 『만선일보』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와 문학적 욕망과 관련하여 분석해본 이 연구는, 그 시기 만주 지역의 시조를 민족의식의 발현 또는 친일문학으로 편향되게 규정하는 기존의 시각을 수정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본다. 『만선일보』 발표 시조를 담론 차원에서 고찰해봄으로써, 매체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작품에 대한 허용과 검열,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담론으로서 시조가 만들어내고 있는 의미를 포착하여 재만 조선 문학인의 복합적인 인식과 존재 방식의 한 면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만선일보』, 1939. 12. 5~1941. 12. 10.
- 『조선문단』 제4권 제4호, 조선문단사, 1935. 8.
- 심연수, 『소년아 봄은 오려니』(심연수 시선집), 강원도민일보사, 2001.
- 심연수,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1집 심연수 문학편』, 중국 조선민족 문화예술출판사, 2004.
- 심연수, 황규수 편, 『심연수 원본 대조 시선집』, 한국학술정보, 2007.
- 심연수 저, 황규수 편, 『비명(碑銘)에 찾는 이름』(심연수 시선집), 아송, 2010.
-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제국 일본』, 논형, 2007.
- 김윤식, 『문학사의 새 영역』, 강, 2007.
- 김영주,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만주 체험의 복합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5.
- 김창걸,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3집 김창걸 문학편』, 중국 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2003.
- 김홍식, 『한글전쟁: 우리말 우리글, 5천년 쟁투사』, 서해문집, 2014.
- 남창룡, 『만주제국 조선인』, 신세림, 2000.
- 박경수, 『만선일보 소재 동시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38집, 우리문학 회, 2013, 419-462쪽.
- 우은진, 『1920-40년대 시조 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2.
- 유지원 · 김영신 · 정성미 · 김주용 · 이홍석, 『이민과 개발-한중일 삼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2011.
- 이광수 저,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2』, 평민사, 1995.

- 이성천, 「재만 시인 심연수 문학연구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어문연구』 제70호, 어문연구학회, 2011. 12, 363-387쪽.
- _____, 「재만 시인 심연수 문학의 실증주의적 고찰」, 『국제어문』 제60집, 국제어문학회, 2014. 3, 9-34쪽.
- 이은상, 『노산시조집』, 한성도서, 1932.
- 이정우, 『담론의 공간』, 민음사, 1999.
- 장인성·김태진·이경미 편, 『근대한국 국제정치관 자료집』 제2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정혜경, 『조선 청년이여 황국 신민이 되어라』, 서해문집, 2011.
- 고마고메 다케시,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역,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 통합-조선·대만·만주·중국 점령지에서의 식민지 교육-』, 역사비평사, 2008.
- 사라 밀즈, 김부용 역, 『담론』, 인간사랑, 2001.
- 앤터니 이스톱, 박인기 역, 『시와 담론』, 지식산업사, 1994.
- 오오무라 마스오, 『운동주와 한국문학』, 소명출판, 2001.
- 오카다 히데키, 최정옥 역,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역락, 2008.
- 이-푸 투안, 최지원 역, 「문학과 지리학: 지리학적 연구의 함의」, 『지역문학연구』 제5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1999, 131-147쪽.
- 프래신깃트 두아라,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Abstract>

Study on Sijos in Manchuria at the End of the Japanese Empire

Woo, Eun-jin

Since the foundation of Manchukuo by the occupation of the Japanese Empire in March, 1932, Korean literary circles in the area of Manchuria began to be formed in a full scale. Among the sijos created in Manchuria at that time, 28 pieces of sijos published in 『Manseon Daily』 from the latter part of 1930s to 1940s and Sim Yeon-su's unpublished works can be identified at present. In this research, the discourse on sijos in the area of Manchuria at the end of the Japanese Empire was analyzed with those two as the text. The understanding of the genre of sijo, desires as writers of the colony, and recognition of the place of Joseon and Manchuria of the Korean poets who created sijos in Manchuria at the last stage of the Japanese Empire were investigated.

『Manseon Daily』 permitted literature in Korean language as the filed to publish Korean literature in Manchuria at the end of the Japanese Empire, however their contents were censored by the colonial authorities. The censorship came to take priority over the quality of a work, and affected publication of the works or winning a prize. No established or would-be authors who intended to work in Manchuria were completely free from the censorship. This study argued that the sijos created in Manchuria at the end of the Japanese

Empire had emerged in response to the media discourse, and examined the context and depth.

Key Words : Sijo, End of the Japanese Empire, Manchuria, 『Manseon Daily』, Lee Po-young, Sim Yeon-su, discourse

■ 논문접수 : 2015년 11월 13일

■ 심사완료 : 2015년 12월 2일

■ 게재확정 : 2015년 12월 20일